



**시민과 함께 2019 / 7월 5주차**

**■ 연구원 소식**

○ 제4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개최 안내(8월 17일)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국제독립운동영화제가 4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는 8월 17일(토) 13시부터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2019. 8. 17.(토) 13시~20시

나. 장소: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34)

다. 대상: 시민 누구나

라. 주최 및 주관

- 1) 주최: 항일영상역사재단
- 2) 주관: 광복회 전북지부,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 3) 협력기관: 전주대학교 K-History 특성화사업단

마. 영화제 세부 일정

날짜	시간	일정
8월 17일(토)	13:00 ~ 15:20	- 개회식 ① 개회사: 이강안(한국고전문화연구원장) - <대호> 상영
	15:20 ~ 15:30	- 휴식시간
	15:30 ~ 17:20	- <사울의 아들> 상영
	17:20 ~ 17:30	- 휴식시간
	17:30 ~ 19:10	- <병정님> 상영
	19:20 ~ 20:30	- 저녁식사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행사 안내 (8월 31일 ~ 9월 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이 어느덧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는 **"8월 31일(土)~9월 1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회원인 김순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어 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개원 13주년 회원의 날은 전통문화와 역사를 찾아보는 교양 강좌와 향음주례(鄉飲酒禮)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왕기석 원장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함께하시어 경향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서른 셋 임신부, 일제의 품에 폭탄을 던지다 (1920년 8월 3일)

1919년 3·1 운동 후 100년이 지났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생각하면 유관순 열사 이외에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친일파는 “을사5적”만 떠오르게 학습 받은 우리네 역사 교육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기에는 너무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수많은 여성 항일투사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부로부터 훈장과 포상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2%에 불과하다.

예전과 달리 2015년 제작된 영화 <암살>의 안옥윤(전지현 분)이나 2016년 영화<밀정>의 연계순(한지민 분)이 근래 대중에 회자되며 피동적이고 주변적 성격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뤄지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일이다.

오늘 이야기 될 주인공은 우리가 쉽게 듣지 못했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888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난 그는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해 29일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석방된 후 평양에 본부를 둔 대한애국부인회에 합류, 모금한 군자금을 상해임시정부로 전달하는 교통부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모금된 돈은 2400원. 쌀 한 가마에 1원 하던 시절이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을 맡을 정도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믿은 당차며 독립의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1920년 8월 당시, 미국 상하 의원단 100여 명이 동양 시찰차 중국에 들러 일본으로 가는 길에 조선(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정보를 입수한 대한광복군 총영은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총영 소속 10여 명의 청년들로 결사대를 꾸려 서울과 평양, 신의주의 경찰서 등을 폭파하는 거사를 계획한다. 미국의 의원단이 조선을 통과할 때 거사를 일으켜 한국의 민인들이 가진 독립에 대한 열망과 실천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시 서른셋이었던 그는 유일한 여성 대원이었다. 게다가 임신한 상태였다. 안타깝게도 그가 속한 제2대 2조의 평양경찰서 폭파는 폭탄의 불발로 실패하고 만다. 이에 다른 대원들은 황해도로 가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임신한 몸이라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 폭파 기회를 노리다가 한층 강화된 감시와 경비로 뜻이 좌절되고 만다. 그리고 도피 7개월 쯤 무렵 출산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몸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안경신이 체포된 것은 도피생활 7개월째인 이듬해 1921년 3월 20일. 피신처에서 아기를 낳은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평양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에게 체포된 그는 원산을 거쳐 3월 26일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품에는 태어난 지 12일 정도 된 핏덩이가 안겨 있었다. (...)여성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남자현 의사 처럼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폭탄 투척 거사와 같은, 남성의 열사들도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에 나선 여성 투사는 안경신이 유일하다. 거사 직후 언론은 그를 두고 '여자 폭탄범'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의 동지 최매지는 이렇게 증언했다.

"독립투쟁가가 많이 있고 여성 투쟁가도 수없이 있다. 그러나 안경신같이 시종일관 무력적 투쟁에 앞장서서 강렬한 폭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야멸찬 친구는 처음 보았다."

- 정운현, 2016, 인문서원<조선의 딸, 총을 들다>에서 -

그는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체포 불과 열이틀 전에 출산한 몸이었으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0년형을 확정받았다. 그가 체포되자 모친은 충격으로 사망했고 출생 직후 감옥에서 함께 지낸 아들은 감옥에서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출옥 후 그의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핏덩이를 안고 형무소로 끌려간 그가 출옥한 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말이다.

정부는 1962년에 3·1절을 맞아 그에게 건국훈장 국민장(현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족조차 찾지 못해 훈장을 국가보훈처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유족이라도 찾아 그의 영전에 뒤늦으나마 훈장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랄 뿐이다.

1920년 8월 3일, 치마 속에 폭탄을 숨겨 조국으로 돌아 온 **안경신**이 일제의 품에 조국 독립의 혼을 던졌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첫 번째 이야기 - 이천의 설봉공원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우리나라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암자는 그리 흔치않은 데다 찾아가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깊은 산중이나 외진 곳에 남몰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서 힘든 발품을팔아야 한다. 그렇지만 경기도 이천시利川의 설봉산雪峰山영월암映月庵은 누구나 찾기 쉬운 곳에 자리를 열었다. 중부고속도로의 서이천나들목에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설봉산은 솟았다.

서이천 나들목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 5분 정도 가다가 만나는 큰 도로는 3번 국도다. 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이천 시내로 향하면, 5분쯤 뒤에 오른쪽으로 이천소방서가 나타난다. 왼편에는 고려대 이천의료원이 보인다. 여기서 500m를 직진하면, 오른쪽으로 설봉공원을 알리는 아주 큰 입간판이 서 있다. 안내에 따라 관고저수지를 왼편으로 끼고 들어가면 설봉공원이 나온다. 설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친 넓고 아늑한 시민 공원이다.

설봉공원은 온갖 체육시설과 아울러 이천도자기엑스포장, 이천도자박물관, 월전미술관 등을 품에 안았다. 이천 9경 가운데 2경, 3경, 4경에 해당하는 설봉호와 삼형제바위, 설봉산성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으니, 그만큼 설봉산이 아름답다는 증거다.

게다가 설봉산은 물이 많다. 예닐곱 개나 되는 약수터에서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뿜어져 나온다. 이 물은 구암계곡, 여래계곡, 호암계곡으로 흐른다. 넉넉한 수량은 늘 설봉산을 적시고 내려와 설봉호에서 하나가 된다. 설봉호 역시 수려한 경관으로 이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후련한 수면에 가슴이 탁 트이는 곳으로, 호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설봉산은 여러 경로로 오를 수 있다. 정상에 해당하는 희망봉이 394m밖에 되지 않으니,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은 산행이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2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암계곡을 따라 올라가 설봉산성을 거쳐 정상을 구경한 다음, 출렁이는 능선을쫓아 부학봉浮鶴峰아래쪽의 영월암으로 하산하는 길을 택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삼형제바위를 구경할 수 있다.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길도 편하고 설봉산의 야무진 면모도 제법 맛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당돌하고 기세가 좋은 산이다.

등산로가 짧고 쉬운 설봉산은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천년 암자 순례길이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무나 선뜻 함께할 만한 아름답고 정다운 숲길이다. 게다가 고즈넉한 영월암의 분위기는 심산유곡의 천년 암자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영월암에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적지 않다.

설봉산은 한남정맥의 지맥 하나가 뺏어 내려 솟은 산이다.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은 죽산의 칠현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갈라진다. 한남정맥은 이곳에서 백운산과 구봉산 그리고 대곡둔현과 소곡둔현에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때 북으로 뺏은 줄기 하나가 좌천고개를 거쳐 정수산과 양각산을 솟아 올린 뒤, 설봉산으로 매듭을 지었다.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린다고 했다. 한남정맥의 끝자락 한 줄기를 차지한 설봉산의 기운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설봉산은 일찍이 이천의 진산鎭山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설봉산 능선의 곳곳에서는 이천 시내가 시원스럽게 내다보인다.



설봉산에서 바라다본 이천 기름진 들판에서 법씨가 알알이 영글 듯, 저마다의 삶이 소중하게 펼쳐진 인간의 터가 아득하다.

다음 주는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두 번째 이야기 “호암계곡과 설봉산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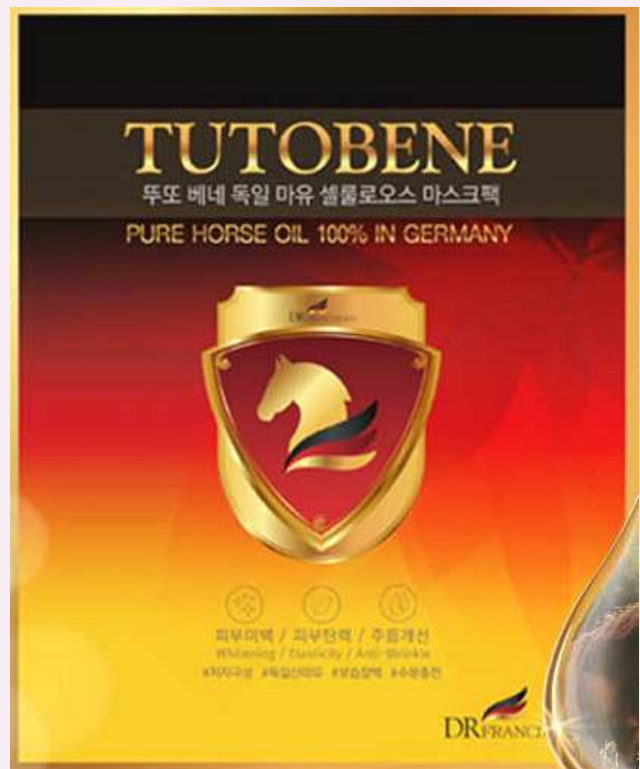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마유팩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